

오백일흔네 돌 한글날을 보내고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얼마 전 텔레비전을 통해 나온 공연을 보며 한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의 입에서 생뿔뿔한 단어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위정자는 ‘정치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렇다면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왜 이런 엉뚱한 말이 나왔을까. 아무래도 위정자(爲政者)를 ‘위선적인 정치인’쯤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 노래는 참 좋았는데, ‘육의 티’였다고나 할까.

옛그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에게 ‘오랜만이예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상대방도 ‘정말 오랜만이네요’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나는 ‘오랜만’인데 그는 ‘오랫만’이었다. 이럴 땐 늘 마음이 편치 않다. 아마도 직업병일 것이다.

해마다 한글날이 들어 있는 10월이면

너도나도 우리말·우리글 사랑을 외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콩떡 같이 말해도 찹떡 같이 알아들으면 됐지, 그거지 그 어법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듯 별로 신경을 안 쓴다.

모범이 되어야 할 방송사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최근 합평에서 열린 한강연에서 철학자 최진석 교수가 들려준 경험담이다. 아마도 한글날 무렵이었을 것이다. 뉴스 진행자가 한참 우리말 사랑을 강조하더니 “끝이어 ‘픽 뉴스’가 있습니다” 하더라는 것이다. 방송사에서는 ‘꼭 꼭 집어 말해 준다’는 뜻으로 ‘픽(pick) 뉴스’라는 제목을 달았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픽 뉴스’라는 말을 들으니 나 또한 ‘픽’터져 나오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포주보다 못한 언론이랴니

최 교수는 또 다른 강연에서도 이를 지적한다. “요즘 방송을 보면 프로그램 제목에 온갖 영어가 난무합니다. ‘오 마이 베이비’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아이고 내 새끼’ 하면 왠지 촌스럽게 들리죠?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대담에 익숙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

을 더 권위 있고 고급스러운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다. 그렇다면 방송만 그럴까? 아니, 신문도 마찬가지다. 부끄럽지만 지금부터는 ‘자기비판’에 들어간다. 일간지의 경우 대부분 각 면의 성격을 맡아 주는 제목을 지면 맨 윗부분에 배치한다. 광주일보는 그중 사람들의 동정을 소개하는 20면 제목으로 ‘사람과 생활’이라는 뜻의 영어(‘People & Life’)를 사용하고 있다. 2면 제목의 경우도 한글로 쓰긴 했지만 ‘투데이’라는 영어 이름을 붙였다.

영어 사용은 다른 신문들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중앙일보의 경우 ‘투데이’를 인물 소개 면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에서 ‘사람과 이야기’라는 뜻의 영어(‘People & Story’)를 원어 그대로 쓰고 있으며, 동아일보는 ‘피플 & 투데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방송에서 흔히 쓰는 앵커라는 말도 나쁜 마뜩하지 않다. 이 용어는 1952년 미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사의 전설적인 뉴스 진행자였던 윌터 크롱카이트로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앵커(anchor)의 원래 뜻은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닻’이다. 결국 앵커는 ‘뉴스의 닻’ 역할을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앵커 대신 ‘뉴스 진행자’라는 말을 쓴다 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다.

나는 출퇴근길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51번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있다. ‘색시집’ 간판들이 다. 한데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불나비’ ‘입술’ ‘안개꽃’ ‘천년의 사랑’ ‘빛’ 등등. 그중에서도 백미(白眉)는 ‘끝내주는 집’이다. 중의법(重義法)을 사용해 업소의 성격까지 잘 드러내는, 정말 ‘끝내주는’ 이름 아닌가. ‘빛’! 도 뭔가 은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누가 이런 기막힌 이름들을 지었을까? 색시들인가, 포주들인가? 어찌 됐든 문득 이들이 언론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고운 언어를 사용해야 할 ‘언어운사’(言語運士, 아나운서)들마저 때로는 ‘역대급’ 등 말도 안 되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1도 모른다’ ‘1도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 처음 들을 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도

모른다’ ‘하나도 없다’란 뜻이란다. 예를 들면 ‘부러울 것 하나도 없다’를 ‘부러울 것 일도 없다’라고 한다. ‘영화에 관해서는 하나도 아는 게 없다’ 해야 할 것을 ‘영화에 관해서는 일도 아는 게 없다’라고 한다. 마치 ‘두 시 삼십 분’이라 해야 할 것을 ‘이 시 설흔 분’이라 말하는 것처럼 어색하다. 하지만 알고도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테스 형이 우리 앞에 온다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법에 맞지 않는 말들을 마구 쓴다. 지난해 추석 때 우리는 ‘즐거워 한가위 되세요’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어느 식당 주인은 손님들에게 ‘맛있는 저녁 되세요’라는 손편지를 남겼다고 한다. 이 말들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한가위’나 ‘저녁’이 되라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한가위’가 되고 ‘저녁’이 되나. 아마도 이런 것은 영어 번역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모두 비문(非文)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일 뿐이다. ‘한가위 즐겁게 보내세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하면 얼마

나 자연스럽게 좋은가.

사람이 생기고 나서 법이 생겼듯이 언어가 생기고 나서 문법이 생겼지만, 문법도 엄연히 법이다. 법은 공동체가 함께 지키자고 정한 것이다. 의미만 통하면 되다며 자꾸만 어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말갈살이 또한 끝없이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 ‘테스 형’도 약법인 줄 뻔히 알면서 독배를 마시지 않았던가.

테스 형 아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나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마당에 새겨져 있던 문구라고 한다. ‘약법도 법’이란 말 역시 테스 형이 말한 것처럼 와전됐지만, 사실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가 도모오가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아고라의 철학자들에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지만, 너희들은 너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했던 테스 형. 형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언어를 함부로 굴리는 우리를 향해 ‘너희 모국어어를 알라’라고 일갈(一喝)할 것만 같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無知)를 크게 꾸짖을 것만 같다.

순천의료원 장비 노후화...“정부 지원 필요”

의료기기 90% 내구연한 넘겨...인공호흡기 등 8종 20년 지나 “정부, 지방 공공의료 강화위해 인력 수급·장비 지원해야”

전남도립 순천의료원이 전국 34개 지방 의료원 중 가장 낮은 의료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의료원 의료기기 10개 중 9개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인공호흡기와 수액 자동주입기, 수술용 현미경, 전신마취기 등 8종은 20년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의료기기 10개 중 4개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지방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 뿐 아니라 의료시설과 의료기기 지원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비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기 4만5799개 중 내구연한을 넘긴 의료기기는 1만8148개로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내구연한 초과기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순천의료원으로 나타났다.

순천의료원은 의료기기 311개 중 263개(84.6%)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장치), 인공호흡기, 마취기, 수술 현미경, 수술용 무명등, 초음파치료기 등 8가지 의료장비가 모두 내구연한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지 20년이 넘어 낡은 의료장비도 이동식 인공호흡기, 수액 자동주입기, 수술용 현미경, 전신마취기 등 8종이나 됐다.

도립강진의료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484개 의료장비 가운데 254개(52.5%)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의료원은 인공호흡기, 수술 현미경의 내구연한이 모두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의료원은 의료장비 660개 중 323개(48.9%)가 내구연한이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의료원 다음으로 보유 의료장비 내구연한 초과 비율이 높은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은 군산의료원(81.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79.7%), 충주의료원(78.5%), 속초의료원(77.0%) 순으로 조사됐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기가 내구연수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고장이 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노후화된 의료 장비는 치료 도중 고장이나 여러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등 인력 수급 문제 뿐 아니라 의료기기와 설비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일빌딩245’ 호남 유일 가을시즌 ‘숨은 관광지’ 선정

한국관광공사, 전국 7곳 엄선

전일빌딩245가 광주·전남·북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가을시즌 ‘숨은 관광지’로 선정됐다.

문화부와 관광공사는 2019년부터 계절별(분기별)로 신규 개방 관광지와 한정된 기간에만 개방하는 한정 개방 관광지를 소개하는 ‘숨은 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을시즌 ‘숨은 관광지’는 지난 7월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2209곳을 접수받았으며, 여행자가, 기자 등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전국 7개 관광지를 엄선했다.

전일빌딩245는 광주의 세월과 사연이 담긴 전일빌딩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흔적이 발견된 이후 과거를 보듬고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선정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흔 너머 광주의 삶과 역사가 깃든 공간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전일빌딩245는 하절기 오전 9시~밤 10시, 동절기 오전 9시~밤 9시까지 개방된다.



한국관광공사가 21일 ‘숨은 관광지’로 선정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중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총탄 흔적 원형보존 공간을 중심으로 조성된 5·18기념공간인 ‘19800518’, 광주 및 인근 남도의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남도관광센터’, 노트북과 태블릿 등으로 DVD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체험할 수 있다.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관광지는 관광지 와 함께 가보면 좋을 주변 여행지와 추천 코스, 숙박, 맛집, 이동경로 등 상세정보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스마트

폰 앱 ‘now추천’ 메뉴 내 ‘숨은관광지’ 코너를 통해 소개된다.

2020년 가을시즌 추천 ‘숨은 관광지’는 전일빌딩245를 비롯한 ▲서울 흥제유연 ▲강원 동해시 배틀버위산성길 ▲충북 제천시 의림지 옹주폭포 우리전망대 ▲경북 울진국립해양과학관 ▲경남 밀양시 표충사 우리아리마을숲놀이터와 국립밀양시 기념과학관, 밀양아리마을우추전망대 ▲제주 서귀포시유의 숲이 선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합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합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0년 9월 16일 주주총회 결의로 인하여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일일부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연안주유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288
청산인 김홍석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0년 10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금 510,000,000원중 금 160,000,000원을 감소하여 35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 총수 51,000주중 16,000주를 주주 사정량과 주주 강태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소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 일일부 1월 이내에 본 회사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지음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성로19번길 29-2(장덕동)
대표이사서장명

산행안내

10월25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0월25일(일) 천대산(충북 영동), 업무체육관 06:20, 무등경기장 06:40, 동광주홈플러스 07:0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1월8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1월8일(일) 작은가야산(경남 함천), 업무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홈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분실공고

•오피스텔 공금계약서: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45-16 동명동 센트럴파크 오피스텔(업무시설) A1-type, 905호
•계약자: 정 경 심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0년 10월 22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68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종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행구독 (062)220-0550